

민우여성학교 10년 - 교육은 단체의 '갯벌'과 같다!!

김김희정 (동북여성민우회 사무국장)

1. 들어가며

동북여성민우회가 서울 북부 지역에 문을 열고 활동한 10년은 민우여성학교의 역사와 함께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87년 민우회가 설립되고 얼마 되지 않아, 지역으로 활동의 방향을 잡은 것은 일찍부터 지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잠재되어 있는 주부들의 역량에서 운동의 희망을 읽어낸 탁월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지역의 주부들의 활동역량을 엮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다름 아닌 민우여성학교이다. 민우여성학교는 강좌들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회원활동을 시작하고 활동가들이 자라나온 터전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민우여성학교의 목적은 나와 내가족의 일상에 매몰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내 울타리 밖의 사회전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속의 나'를 찾아 여성문제, 사회문제, 환경문제 등이 나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회원을 발굴하고, 후속모임 등을 구성해서 해나가는 작은 활동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식을 공감해가는 것이 민우여성학교의 교육목적일 것이다.

그때 그때 적합한 프로그램의 변화와 여성학, 자녀교육, 성교육, 환경, 미디어, 통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통하여 지역의 여성들과 10년을 함께 호흡해온 동북여성민우회의 민우여성학교의 자취를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2. 민우여성학교의 두 축 -교양강좌와 사회교육

민우여성학교의 사회교육만으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민우회를 알리고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었다. 사회교육과 취미, 교양교육을 함께 마련하여 민우회의 진보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일반 주부들이 누구나 쉽게 참여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지금은 백화점 문화센터를 비롯하여, 구민회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의 취미교양강좌 프로그램들이 홍수를 이루지만, 초창기만 해도 민우여성학교는 지역주민들에게 꽤나 반가운 공간이었다. 여성민우회 단체 활동의 특성상 여성학 강좌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여성학 강좌를 통해 기본적으로 여성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자세와 함께 환경, 건강, 지방자치 등등의 사회 전반적인 주제를 다양하게 다루어 오고 기수별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강좌 외에 신학기를 앞두고 실시하는 학부모 교육, 여름, 겨울방학 등을 이용한 역사기행, 문화교육 등 그 범위가 넓혀지곤 하여왔다.

1) 일반 교양 강좌

일반적인 관심사를 쫓아 지역의 주부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강좌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친근함을 지닌 강좌로 초창기의 수지침, 메이크업, 생활도자기 등으로부터 최근의 요리강좌, 쿨트, 한지공예 등의 생활교양강좌이다. 다른 곳에서도 흔히 이루어지는 강좌라 하더라도 민우회라는 장에서의 교육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이런 강좌들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일반 주부들을 만날 수 있는 열

려있는 공간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의 강좌를 살펴보면 역시 자녀교육과 관련한 강좌들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역할훈련은 강사와 그 내용의 변화를 가지면서도 매기 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강좌이다. 이 강좌를 수강한 회원들이 보다 높은 단계의 수료기간을 거쳐 여러 사람이 강사로 배출된 점 또한 이 강좌의 특징이다. 자녀글쓰기지도나 독서지도 또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는 강좌이다.

2) 사회교육

사회교육은 민우회가 지향하는 운동과 관련하여 보다 사회적인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교육이다. 여성학이나 역사, 환경, 생협, 미디어, 평화 등의 주제를 가지고 주부들이 자신을 둘러싼 일상에서 조금은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강좌라고 할 수 있다. 민우회가 지역에서 처음 이런 강좌들을 시작했을 때는 많은 관심들을 보여 주었는데 갈수록 이런 강좌를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적인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최근에는 이 교육은 주로 열성회원들과 활동가들의 재교육 측면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연도별로 본 민우여성학교 교육내용

1) 92년 - 94년

92년부터 실시한 민우여성학교는 초창기에는 다른 사업이 무르익지 않은 때라서 민우여성학교가 활동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여진다. 92년 3기, 93년 4기, 94년 3기 등 1년에 34차례의 민우여성학교가 열렸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교양강좌로 생활도자기, 손침, 생활영어, 한문, 비디오 촬영, 메이크업, 피부관리, 의상/홈패션, 꽃꽂이, 기초일어 등의 강좌가 있었다.

2기 사회교육은 여성학과 자녀교육, 성교육 등을 주제로 한 통합적인 여성사회교육의 내용이다. 이때, 현재 여성부 장관이신 한명숙 선생님이 민우회 대표이시던 시절로 강사로 초빙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3기 사회교육으로는 식탁안전, 자녀 진로지도 등이 있었고, 94년 9기 때, 오숙희의 여성학 강좌는 주부들에게 매우 반응이 좋아 2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고, 민우회를 홍보하는 데 일조를 하였다. 오숙희의 여성학 강좌는 여성 문제가 대중화되지 않은 시기에 지역에서 여성학을 대중적으로 풀어 내며 도봉구민회관, 노원구민회관에서 매회 100-200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공을 거둔것은 유명 강사를 등장 시킨점 외에도 집중적인 홍보작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년도	기수	교양강좌	사회교육	기타
92년	1기-3기	생활도자기, 손침, 생활영어한문, 비디오촬영, 메이크업, 의상/홈패션	활기찬 중년여성, 건강한 가정 자녀와의 대화(부모역할훈련) 사추기엄마와 사춘기 자녀(청소년 심리) 몸에 맞는 민간요법 감추어진 성, 드러난 성(청소년 성교육)	환경문제 세미나 부모역할훈련
93년	4기-7기	자녀글쓰기지도, 꽃꽂이, 일어	부모역할훈련, 어린이 성교육, 생각하는 어린이, 적성과 진로지도, 올바른 식습관 식탁안전, 가공식품	
94년	8기-10기	"	자녀교육(4회), 오숙희 여성학강좌(6회)	역사교실

2) 95년-98년

민우회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민우여성학교도 자리를 잡아가서 보다 다양한 요구의 강좌들이 개설되었다. 기본적인 교양강좌는 꾸준히 진행되었고, 서서히 오르기 시작한 문화에 대한 욕구도 강좌에 반영되었다. 여성학강좌를 강의의 통한 방식이 아닌 여성영화를 보면서 진행한 것도 새로운 시도였으며, 좋은 호응을 얻었다. 95년부터 시작한 가족과 성상담소 사업은 사회교육의 많은 부분을 상담원 양성을 위한 교육을 비롯하여 성교육 등 상담관련 교육내용으로 채우게 되었다.

또한 지방선거를 경험하고 지방자치와 정치에 대해 증가된 관심은 '미리보는 97대선'과 같은 정치를 주제로 한 사회교육을 가능하게 하였다.

년도	기수	교양강좌	사회교육
95년	11기-12기	부모역할훈련, 자녀글쓰기지도, 일어강좌	성교육강좌(4회)
96년	13기-15기	부모역할훈련, 자녀글쓰기지도, 레크리에이션, 기공반, 자녀그림지도	상담원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4회) 여성의 눈으로 영화읽기(5회)
97년	16기-18기	부모역할훈련, 자녀글쓰기지도, 그림지도, 문화탐방	열린삶을 위한 주부강좌 (평등한부부, 자녀성교육, 여성관련 법률상식, 자녀교육) 사회주부를 위한 사회강좌 (문화의 수수께끼, 미리보는 97대선, MBTI, 여성과 환경, 여성운동의 길)
98년	19기-20기	부모역할훈련, 살아있는 글쓰기, 살아있는 그림그리기, 신나는만화 세상 우리 아이 일기지도 어떻게할까? 우리 아이 학습지도 어떻게할까? 아이와 함께 TV보기 어린이 창조 학교	우리 아이 성교육 어떻게할까? 상담원 양성을위한 기초교육 특강: 텔레비전 바로 보기 성격유형에 따른 자녀학습지도

3) 99년-2002년

99년 생협매장을 개장하면서 민우여성학교의 내용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시대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의 사회민주화를 이룩한 시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사회변혁의 내용에서는 멀어져가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딱딱한 역사나 정치 강좌보다는 부드러운 내용의 강좌의 요구가 큰 것으로 변화되었다. 자연히 매장을 편안하게 드나드는 지역주부들의 정서에 맞추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욱 열려지고 이에 맞추어 강좌내용도 요리나 쿨트, 한지공예, 건강강좌 등 좀더 편안하고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강좌를 준비하게 되었다. 미술을 통한 자기발견이나 부부대화 등 자아를 탐구하는 좀더 내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강좌도 요구되었다. 강좌의 일정도 상반기, 하반기 각각 1기씩으로 하는 정형을 갖추었다. 한편, 사회교육강좌로 처음 시도된 미디어나 평화교육은 회원과 활동가들에게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고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진 매우 훌륭한 강좌였다.

년도	기수	교양강좌	사회교육
99년	21기-22기	부모역할훈련, 주부창의성, 요리강좌, 부부대화법, 자녀독서지도, 한지공예, 영어	환경강좌, 환경교육강사양성교육
2000년	23기-24기	한지공예, 켈트강좌, 환경요리, 가정독서지도, 부모역할훈련, 건강강좌,	내 삶의 주인 되기 (여성학강좌 5회)
2001년	25기-26기	켈트, 부모역할훈련, 미술을 통한 자아발견, 자녀글쓰기, 환경요리	여성과 평화(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목소리로평화말하기 ■분단과여성 그리고 통일과정 ■주한미군,한국사회와 여성에게 무엇인가? ■일상에서 평화 만들기 미디어와 여성(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과 청소년 ■신문개혁,어떻게 볼 것인가? ■뮤직비디오 바로보기 ■미디어와 여성
2002년	27기	부모역할훈련, 자녀글쓰기, 건강강좌	사회교육(여성학강좌)
2003	28기	부모역할훈련, 신나는자녀글쓰기지도, 켈트, 나를 찾아떠나는 여행, 풍물, 영어, 사진, 아이와 함께 책임는 엄마모임	아줌마 100분토론키워드- 4회

4. 민우여성학교의 평가와 전망

①순수한 교육의 의미

민우여성학교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내용의 교양강좌를 비롯하여 사회전반의 이해를 돕는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고 주부들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원래 교육사업이 갖는 목적을 갖는다. 민우회의 교육내용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여 개인적인 이익만이 아닌 보다 바람직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기능들은 다소의 기복을 겪으면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고 평가된다. 좋은 강좌의 내용은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②조직사업의 일환 - 교육사업을 매개로 하여 일반 주부들의 접근을 쉽게 하고, 회원의 모집, 확대와 더불어 회원 활동의 장이 된다. 교육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후속소모임을 구성하여 민우회의 주된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 초창기에는 많은 효과를 보았으나 참여하는 인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우여성학교를 통해 활동가가 되는 비율은 저조해진 경향이 있어, 신입회원들의 재교육이나 활동가들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의 비중이 커진 느낌이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민우여성학교를 통해 배출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만 그 수가 기대만큼은 많지 않다는 것, 교육사업의 효과는 긴 시간을 통해 얻어진다는 어려운 점이 있어,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노력을 차라리 활동가를 기르는 다른 조직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교육사업과 조직사업, 민우회 활동의 유기적인 연결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일 것이다.

2003년부터 교양강좌의 경우 민우회 회원들 강사(‘이꿈이’라고 부른다)로 댈 수 있는 것으로 범위를 정했다. 그

리고, 사전에 만들고 싶은 소모임이나 강좌를 이신청 받아 홍보를 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담당했다. (카페를 여는 것처럼) 또한 기존의 여성학 소모임이 아줌마 100분 토론카페를 진행하는 등 의미있는 시도를 보였다.

③재정사업의 측면 - 경제사정이 어려운 민우회로서는 재정도 교육사업의 중요한 한 측면이었다. 조직과 홍보 뿐 아니라 재정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정회원 회비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지부 재정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변에 백화점 문화센터, 구민회관등 교육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수강생이 점차 줄어들고, 구민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의 외부의 교육들이 수강비가 저렴한 현실 속에서 좋은 강좌와 수강료 사이의 고민이 있다. 강사비도 충당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의욕껏 개설한 강좌가 폐강하는 일이 종종 있기도 한다.

④ 그 외 :

동북민우회는, 2000년부터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을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공동체를 만들 중요한 기회이면서, 마을의 다양한 집단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단체 내에서 활동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느끼지만, 지속되어야 할 교육이다.

또한 여름 방학 때 진행되는, 청소년자원활동학교, 어린이학교, 캠프 등 교육활동은 민우회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비회원들에게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교육과정이 끝난 뒤 후속모임의 리더가 되거나 다른 회원활동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한마디로 민우여성학교는 여전히 지역 주부들을 자발적으로 불러모을 수 있는 활동 터전이다.

5.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교육

- 동북민우회 회원의 98%이상이 생협회원(조합원)이며, 생협활동은 동북민우회의 근간활동임

- 민우회 회원 <=> 생협조합원, 그 오묘한 관계

- 생협은, 조직의 운영원리로 작용(또는 적용) 하려는 노력에 눈뜬 상태

- 동북여성민우회는 여성단체이고, 단체의 운영원리로 생협을 적용시키고자 (통합하고자) 함

따라서, 생협관련 교육의 내용과 방식(사전홍보부터 진행 이후 사후작업등)에 혼재(?) 통합되어 있음

- 생협관련 교육의 내용은, 주로 먹거리강좌, 학교급식문제등 환경과 건강강좌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민우회 생협의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하고, 교육이후에 공동체 및 지역모임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에 역량을 투여.

- 생협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주체는, 사무국외에 생협위원회 (조직위원회라는 말이 더 적절할듯하다/ 지역별로 담당자있음. 생협위원회는 월10만원의 활동비)와 생활재위원회가 담당.

또한 대상자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지기도 함.

1. 비조합원대상 : 생협설명회 (아파트 단지에 직접 들어가서 진행)

=> 신입조합원 가이드 북에 나와 있는 민우회생협소식 및 생활재 시식 (매달 집중생활재 있음)으로 진행

2. 조합원대상교육 : 생협간담회

=> 생활재를 이용하는 조합원들 집에서 민우회생협이용에 대한 의견나눔. 민우회 다른 활동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함(지역자치위원회, 각종 소모임, 교육참여)

: 그러나 실제 가보면, 역시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수위를 조절함

동북민우회에서 진행하는 생협관련 교육을 크게 나눠보면

1.회원월례회

매달 사무실교육장에서 진행한 적도 있었으나 작년(2002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였으며, 올해 역시 그렇다. 회원들을 사무실로 오게하기보다, 회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과 도봉구 중 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찾아가는 회원월례회를 진행하고 있다.(이때 부녀회 등과 협조체계 이룸) 지난 해 상반기에는 서울방송의 특집방송 이후 증폭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생협으로 수렴하기 위해 기획된 4회 대중강좌로 시의적절하게 대응했다. 올해 역시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갔던 노원지역을 위해 노원구 중계2동 동사무소에서 3달째 매주1회 모임을 진행하고 있음. (먹거리강좌 4회-> 에니어그램2회 -> 부모역할훈련 8회 진행중)

2.신입회원 교육

연2회 실시하고 있으나, 회원가입율에 따라 횟수를 증감하고 있다. 지난해 600여명의 회원이 신규가입했고, 올해 신규가입회원은 350여명이다.(목표 700명). 신입회원 교육에는 민우회 역사와, 민우회조합원선언문 등 민우회생협정체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올 상반기(3월) 200여명 대상으로 작업했으나, 7명 참석하여 우울했으나 대체로 그렇다.

적은 인원이 참석했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공동체를 엮겠다는 신념아래 지역별로 자리를 배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협교육에는 자연스럽게 생활재식 프로그램이 들어감 (교육대상자에 따라, 시기에 따라 시식품을 선정함)

3.생협설명회

지난해 40회의 생협설명회를 진행했다. 6.13지자체선거로 하반기에는 주춤했으나 40여명이 설명회를 통해 가입한 성과가 있었으며,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4. 그 외 :

- 거리시식회 (2002년 총13회 진행) 지역별로 공략해 들어감
- 산지견학(2002년 16회 진행) 지역별,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 진행함

5. 각 지역민우회 생협활동가를 위한 생협본부차원의 교육 (생협본부 교육조직위원회에서 담당)

- 2002년 민우회생협 정체성위원회 구성 => 조합원 선언문 만들어짐
- 조합원포럼 (매월 진행)
- 생협전단활동가를 위한 워크샵
- 민우회 생협 이사를 위한 경영교육등...